

退溪사상의 宗教的 성격**

성 배 박 (Sung-bae Park)*

• 目 次 •

I. 問題의 所在
II. 退溪의 믿음

III. 退溪의 수행
IV. 퇴계의 境地와 연구방법론의
문제

I. 問題의 所在

본 논문의 목적은 李退溪(1501~1570)의 언행에 나타난 종교적인 차원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보려는 데 있다.

퇴계는 한국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이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훌륭한 교육자였으며 동시에 한 관리로서도, 자연을 노래하는 시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퇴계학자들은 퇴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해왔다. 그러나 과묵한 탓인지는 몰라도 퇴계를 한 종교인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

역사적으로 유교는 항상 불교나 도교와 같은 종교사상에 비판적이었고, 교리적으로도 유학의 가르침은 확실히 불교의 교리와 혼동될 수 없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퇴계와 같은 유학자를 종교인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퇴계의 언행을 자

* 뉴욕주립대학(스토니부룩) 종교학교수.

** 이 논문은 1984년 제 7차 퇴계학 국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임. 퇴계학 연구원, 『퇴계학보』 제 44호(1984) 게재논문

세히 검토해 보면 거기에는 숨길 수 없는 종교적인 성격이 무수히 발견된다. 퇴계의 언행이 종교적인지 아닌지를 확인함에 있어서 필자는 믿음과 수행이라고 두 가지의 관점을 적용해 보았다. 믿음과 수행은 어떤 종교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종교구성의 근본요소이기 때문이다.

II. 退溪의 믿음

퇴계는 평생 天理를 믿고 산 분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천리를 믿지 아니한 사람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이 천리를 믿는 것과 퇴계의 경우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인다. 보통 사람들은 천리를 지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데 불과하지만 퇴계는 천리의 실재를 눈으로 보듯 확신했고 일생 동안 천리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가 간 분이였다. 천리란 말은 동양사람들이 가장 즐겨쓰는 말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유교의 성리학자들은 천리를 학문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천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天命, 道, 中, 太極 또는 理 등이 모두 天理를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말들이다.

그러면 퇴계가 믿었던 천리는 과연 어떠한 것이었던가? 이러한 질문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답변이 퇴계의 책에 쓰여져있는 천리에 대한 설명을 종합하고 분석하는 데 그치는 한, 본 논문의 주제를 밝히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본 논문이 문제삼는 천리가 보통 책에 쓰여진 개념적인 천리가 아니라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천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야 하겠다. 한 지식체계 안에 있는 개념으로서의 천리와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과 언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천리 사이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퇴계가 문제삼았던 천리가 과연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천리이었던가 아니면 단순한 지식으로서의 천리이었던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퇴계는 천리를 말할 때에 매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경우가 많았다. 이 점은 그가 奇高峯(1527~1572)과 理氣論爭을 할 때에도 뚜렷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퇴계는 그의 후배인 李栗谷(1536~1584)으로부터 가혹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율곡은 그가 成午溪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퇴계가 奇明彦과 四端七情을 논한 것이 무려 萬餘言이지만 明彦의 이론은 분명하고 똑바로 갈라져서 대조개는 것 같고, 퇴계는 비록 상세하나 이치가 밝지 않아 반복하여 음미하여도 마침내 틀림없이 확실한 맛이 없으니 명언의 학식이 어찌 감히 퇴계를 따를까마는 다만 재주가 있어 우연히 이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퇴계의 뜻을 살피건대 『四端은 안에서 發하고 七井은 밖에 느껴 發한다』는 선입견이 되었고 주자의 『理에서 發하고 氣에서 發한다』는 說을 주장하고 길게 늘어 말하여 허다한 모순을 만들어 냈었으니 매양 읽을 때마다 正見의 한티라고 개탄합니다.¹⁾ 율곡은 여기에서 高峯의 편을 들고 있지만 우리의 문제는 지금 누구의 말이 옳으나, 또는 누구의 논리가 더 분명하냐를 따지는 데에 있지 않다. 우리의 문제는 퇴계가 왜 율곡으로부터 『선입견에 묶여 있다』고 편찬을 받을 만큼 『이치가 스스로 발동한다』는 생각에 묶여 있었던가를 밝혀내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이치가 스스로 발동한다』는 말이 무엇이길래 퇴계는 그렇게도 이 말을 발동한다는 주장을 내세움으로써 後學들에게 많은 시비와 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는 율곡이 지적한 것처럼, 논리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한, 正見의 한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퇴계는 이러한 사정을 다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퇴계는 자신의 주장에 논리적인 모순이 없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순에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 같다.

70을 바라보는 老人家인 퇴계가 30대의 젊은 제자인 高峯과 8년간이

1) 국역 栗谷集 I(고전국역총서 22), p.189 ; 『栗谷全書』(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p.199a

라는 짧지 않은 세월을 계속 논쟁하다가 그것도 마침내는 내가 잘못했노라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이른바 四七論爭은 한국사상사상 가장 감동적인 思想劇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퇴계가 이 긴 논쟁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던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四七論爭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논쟁자들이 모두 서로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 막이 내린다. 그리고 그 閉幕 이전에 두 분은 어떤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다.

그들이 서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합의점에 도달하기까지의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 사죄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합의점이란 다름 아닌 「理」에 대해서이다. 理를 두고 말하는 한, 퇴계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 있다. 理와 氣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소의 수정을 서슴치 않았지만 理가 氣보다 귀하다는 퇴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종일관 변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분명히 퇴계의 굽힐 수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氣는 하나의 질병처럼 항상 理라는 장수의 통솔 아래 있어야 한다는 理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든 理와 氣를 구별해 보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주자를 누구보다도 깊이 공부한 그가 理와 氣가 둘이 아니라는 이론을 모를리 없다. 그러나 매일매일 철저하게 敬 공부를 하고 있는 퇴계로서는 무슨 기둥이 있어야만 했다. 그 기둥이 바로 그의 理貴사상이었다. 理는 純善無雜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理와 氣를 둘로 나누는 잘못은 서슴치 않고 고쳤지만 理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았다.

理와 氣의 관계에 대한 그의 최후의 결론인 理氣互發說도 알고 보면 理에 대한 그의 믿음을 잘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理란 있지 아니한 곳이 없고 하지 아니한 일이 없다고 퇴계는 믿었다. 측은해 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잘잘못을 따질 줄 아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이다. 퇴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있음을 믿었던 것이다. 사람이 純善을 그리워하고 순선의 當體인 理가 항상 나와 함께 있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러한 理에 반대되는

것에는 더욱 민감해지는 법이다. 퇴계가 처음엔 七情을 氣의 발로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를 시정하여, 거기에도 理가 없지 아니함을 인정하면서도 그래도 거기엔 아지고 선악이 함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순선의 理와 구별하려는 것은 퇴계의 理에 대한 믿음이 다분히 종교적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III. 退溪의 수행

퇴계의 수행은 한마디로 말해서 敬공부였다고 말할 수 있다. 퇴계의 敬공부는 앞서도 지적했듯이 그의 理에 대한 믿음의 발로였다. 天理의 無所不在와 無所不能을 굳게 믿는 퇴계는 언제나 어디서나, 사람들이 볼때나 안 볼때나, 항상 天理에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이 그의 敬공부이다. 하늘이 주신 것(天命)이 사람의 본바탕인 人性이고 인성은 곧 理라고 그는 믿었다. 다시 말하면 천명이 곧 천리이고 천리가 곧 인성이었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천리인 인성에 따라 산다는 말밖에 딴 뜻이 있을 수 없으며 스스로의 입장에서 가르치는 교육도 제자의 입장에서 배우는 학문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스승과 제자가 모두 함께 닦는 것이 유가의 기본정신이요, 퇴계의 敬공부이다.

일찍이 주자는 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듣기로는 敬이라는 한 글자는 聖學의 시초와 終局을 성립시켜 주는 것이라 한다.²⁾

이는 유교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인 성인되는 학문에 敬공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강조하는 말이라 하겠다. 聖學十圖를 17세의 어린 宣祖에게 바치면서 퇴계는 그 서문에서 학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2) 尹絲淳譯, 『退溪選集』(玄岩社, 1982) p.341.

배움(學)이란 자기가 배운 것을 항상 몸에 익혀서 그 정신을 몸소 참되게 실천함을 말합니다.³⁾

퇴계는 여기에서 배움(學)의 본질이 실천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남으로부터 배우기만 하고 배운 것을 자기가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 배운 것을 실천에 옮겼을 때에 비로소 그것은 참다운 배움이 된다. 이것이 성인되는 공부의 한 특징이다. 그러나 실천만이 능사는 아니다. 맹목적인 실천은 사람을 어둡게 만든다. 그러므로 배운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실천자의 마음 속은 어두운 대목이 없이 툭 트여야 한다. 성인되는 학문은 실천이 그 핵심인 배움과 완전히 밝아질 때까지 마음 속으로 깊이 생각함을 항상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한다. 퇴계에 따르면 敬공부야 마로 배움과 생각함을 동시에 가능케 하고, 드러난 것과 숨겨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길(道)이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퇴계가 敬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가르쳤는가를 살펴 보아야 하겠다. 퇴계의 전 저술이 敬공부를 가르치기 위해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퇴계의 일생이 시종으로 일관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⁴⁾ 그러므로 퇴계에게 불교의 坐禪法처럼 敬공부의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는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해야 할 敬공부를 어떤 특별한 방법속에 가두어 둘 수는 없다. 이는 敬의 근본 정신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이 敬공부를 잘못한다는 사실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하고 있어야 할 敬공부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방법론이 문제되지 아니할 수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敬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방이 있어야 하겠다. 退溪가 만년에 굳이 벼슬길을

3) 上同, p.323, 1, 24.

4) 朴鐘鴻, 「退溪論-敬으로 一貫된 生涯와 思想-」, 『現實과 構想』(博英社, 1963), pp.340~379.

떠난 것도 보다 더 철저하게 敬공부를 잘하기 위해서였다. 이것도 한 방법이다. 퇴계는 주자를 철두철미하게 연구했다. 그리하여 주자의 세계를 자기 손바닥 보듯 훤히 알게 되었다. 이것도 그의 敬공부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四七論爭을 할 때 그는 철저하게 생각했다.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理에 대한 자기의 이해를 분명히 해 주는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특별히 종교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성리학자들 공통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만년에 지은 聖學十圖는 다분히 종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 十圖를 宣祖에게 바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道는 끝없이 넓으니 어디서 착수할 것이며, 옛 聖人들의 가르침은 너무나 많으니 어디로부터 들어갈 것입니까? 그러나 성인되는 공부에는 뚜렷한 길이 있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법에도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림으로 만들고 해설하여 사람들에게 道에 들어가는 門과 德을 쌓는 기틀을 보여주는 것은 뒤에 나온 賢인들이 꼭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⁵⁾

우리는 위에서 넓고 넓은 道에 들어가는 門이 圖說을 통해서 뚜렷해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러면 도설이 어떻게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퇴계는 이에 대해서 또 말한다.

『오직 옛 현인군자가 聖學을 밝히고, 心法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고, 圖說을 지어 사람에게 入道의 문과 積德의 기틀을 보여준 것이 세상에 전해져 해와 별처럼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에 바라옵나니 저의 聖學十圖를 임금님의 좌우에 항상 펴 놓으심으로써 그 깊은 뜻을 대신해 주기를 빌어 마지 않습니다.』⁶⁾

퇴계는 여기서 성인되는 공부에 圖說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크

5) 李相段譯, 「聖學十圖」, 『韓國의 儒學思想』(三省出版社, 1983), p.233.

6) 上同, p.235.(筆者의 一部改譯)

게 강조하고 있다. 퇴계는 宣祖에게 자기의 聖學十圖로 병풍을 만들어 임금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어 항상 觀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다.

聖學十圖를 宣祖에게 올리는 글에서 퇴계가 간절히 말하고자 한 것은 문명히 모든 종교적인 수행에 핵심이 되고 있는 명상법과 아주 흡사한 효과의 수련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敬공부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顏子, 曾子, 子思, 孟子와 같은 聖人の 경지에 이르러야 하고, 이는 항상 十圖를 옆에 두고서 거기에 골돌해 짐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즘 학자들은 퇴계의 성학십도에 독창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곧잘 따진다. 그러나 만일 퇴계가 성학십도를 제작한 목적이 지적인 데에 있지 않고 선조로 하여금 인간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종교적인 명상법과 흡사한 일종의 수련법을 제시하는 데에 있었다면, 이것이야말로 성리학史上 특기해야 할 독창적인 착상이 아닐 수 없다.

VI. 退溪의 境地와 研究방법론의 문제

퇴계의 믿음은 그의 尊理的傾向에서 그 모습을 뚜렷이 드러냈으며, 그의 수행은 그의 敬공부에서 그 성격을 분명히 했다. 퇴계가 믿는 理는 四端의 모습으로 모든 인간에게서 부단히 일하고 있는 理였다. 퇴계의 이러한 믿음은 그로 하여금 항상 敬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敬공부를 한다는 말은 理가 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이며 이는 理의 사업을 방해하는 모든 人欲의 私와 싸운다는 말이다. 필자가 퇴계의 언행에 종교적인 차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믿는 理와 그가 실천한 敬공부가 항상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기 보다는 그 불가분리를 가능케 하는 구조가 종교적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퇴계의 理와 敬이 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가지

고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종교적이라는 말 외에 딱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퇴계가 理를 말하고 敬을 말할 때에는 마치 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종교적인 경지를 체험한 사람처럼 때로는 말하기를 싫어하기도 하고 말을 해도 애매모호하거나 전후 모순되는 말을 태연히 하곤 했다. 퇴계는 高峯과 8년이라는 짧지 않는 세월의 긴 논쟁을 했지만 그는 논쟁의 공덕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퇴계는 高봉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내가 듣기로는 「道가 살으면 한마디 말로도 충분히 서로 부합할 수 있지만 道가 같지 않으면 많은 말이 도리어 道를 해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배운 것은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한마디 말에서 서로 부합하지 못하고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밝혀낸 것은 없이 해로움을 있게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⁷⁾

여기에서 퇴계가 주장하고 있는 많은 말이 논쟁을 우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道가 같아야 대화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쟁을 통해서 퇴계가 의도했던 것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의 道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道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理를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理를 존중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이다. 퇴계는 高봉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서라도 오직 한 가지 理貴尊理의 道 하나만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같은 道를 닦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理가 귀하다고 말함은 그의 理에의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理를 존중하는 생활이란 다름아닌 그의 敬공부를 가리킨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퇴계에 있어서는 理貴와 持敬의 信과 行의 관계로 하나되어 있음을 말한다. 여기서 둘의 하나됨이란 理貴라는 信 때문에 持敬이라는 行 때문에 理貴라는 信이 더욱 깊어

7) 尹絲淳譯, 『退溪選集』, pp.274~275.

저감을 말한다. 퇴계의 이러한 『하나되어감』은 때로는 상보적이고 때로는 변증법적이다.

따라서 퇴계의 理貴持敬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朱子를 비롯한 다른 성리학자들의 居敬窮理 사상과 현저하게 다르다. 居敬窮理에 있어서의 理는 信의 대상이라기보다 窮究의 대상이기 때문에 종교적이라기보다 다분히 철학적이다. 그리고 敬도 窮理를 위한 방법적인 성격이 더 강하다. 따라서 그 표현도 窮理居敬이라 하면 약간 어색하게 들린다. 그러나 퇴계에 있어서의 理와 敬의 관계는 오히려 그 반대로 信理를 먼저 말하고 修敬을 다음에 말해야 더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러므로 퇴계는 주자의 철학적인 居敬窮理의 차원을 넘어서서 종교적인 信理修敬의 차원으로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말은 퇴계는 禪佛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마디의 가르침에 대뜸 천하의 이치를 다 깨친다는 식의 頓悟사상을 배격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주자와 같은 居敬窮理를 통해서 그의 理에 대한 믿음을 부단히 심화시켰다.

그러므로 퇴계는 그의 信理修敬의 차원 속에 居敬窮理를 함께 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퇴계가 종교적인 차원과 철학적인 차원을 서로 보완하고 융통하는 관계로서 함께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두개의 서로 다른 차원은 동시에 모두 논리적인 차원을 함께 가지고 있다. 종교적인 信理修敬도 철학적인 居敬窮理도 모두가 사람이면 누구나 매일같이 하고 있는 가장 일상적인 현실생활 속에서 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유학자들의 대전제이다. 이 점에서는 퇴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퇴계에 있어서 일상적인 현실의 중시란 오히려 당연한 일 같기도 하다.

그가 믿는 理는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고 항상 살아서 신비스럽게 일하는 理이며 그리고 그러한 理가 하는 일은 안 미치는 곳이 없고 일하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의 귀에 들리는 모든 것, 우리의 손에 만져지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理의 나타남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가장 일상적인 현실을 떠

나서 따로 理를 찾고 敬을 하려 한다면 이는 큰 잘못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윤리와 철학과 종교가 혼연히 한몸이 되어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는 세계가 바로 퇴계의 경지라고 말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날 퇴계사상을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이제까지 퇴계사상 연구가들이 사용한 퇴계사상 연구방법론은 대개가 이른바 현대적인 의미의 학문이라는 말의 뜻은, 오늘날 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말의 뜻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퇴계에 있어서의 학문이란 실천이 그 생명이었으며 그 목적은 성인이 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현대학자들로부터는 매우 주관적이라는 비평을 받을 만큼 자기의 마음으로 외롭게 홀로 실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또한 매우 주체성이 강하고 자각적인 경험 위주의 수련이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학자들의 학문세계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비판성을 지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모든 주장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자의 거리는 의외로 크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양자간의 이러한 거리 때문에 퇴계사상의 계승발전은 기대할 수조차 없게 되어 있고, 학자들이 발표하는 글들은 대개 퇴계사상을 소개하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의 괴로운 독백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도가 같으면 한마디 말로는 충분히 통하는데 道가 다르면 많은 말이 도리어 道를 해친다.』 이 말은 분명히 우리들이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발언이다. 오늘날의 학자적 기준으로 보면 이는 매우 비학문적인 성격 때문에 오히려 그가 그 괴로운 논쟁을 8년간이나 계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퇴계에게는 이 밖에도 또 오늘날의 학자들과는 판이한 점들이 많았다. 오늘날의 학자들에게는 남이 안 하는 새로운 말을 하여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되어있다. 그러나 퇴계의 경우

는 어떠한가? 독창적인 발언을 하여 남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것을 퇴계는 크게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학자들의 정신적 타락현상으로 보았다. 말하자면 퇴계의 학문은 철저하게 자기자신을 위하는 爲己之學이었다. 이 때의 自己란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자기가 아니라 모든 참됨과 올바름이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할 현장으로서 주체적인 자아이다. 그러므로 위기지학이라고 말할 때의 자기는 남들까지도 그 속에 포섭하는 인류적인 大我라 말할 수 있다. 퇴계의 공부는 항상 그러한 본래적인 자기를 키워 나가는 공부이었으므로 겉으로 남의 눈에 띄게끔 나타나는 공부가 아니고 속으로 안 보이게 깊어져 가는 공부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문제는 분명해졌다. 겉으로 나타난 것만을 다루는 현대적 방법론을 가지고 어떻게 속으로 안 보이게 깊어져 가는 퇴계의 세계를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인가?

겉으로는 주자를 답습한 것처럼 보였어도, 퇴계는 주자연구를 통해서, 한없이 자기를 심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점을 밝혀내야 한다. 퇴계다울 수 있는 그 진면목을 많이 놓쳐버릴 염려가 있다.

불교에서는 문학만을 따지는 학자들의 어리석음을 꼬집어서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진짜 달은 보지 않았다』고 비웃는다. 만일 퇴계의 경우에도 그의 저술이 그가 말하고 싶은 모든 뜻을 제대로 다 표현해 주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날의 학자들에게 달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않는 어리석음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퇴계연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론상의 문제점에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